

도지사기 단축마라톤 포천시 3위

10km 30대부 김천구 1위 골인

지난 22일 과천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



제6회 경기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포천시 마라톤 선수들이 대회가 끝난 후 한자리에 모여 3위를 지켰다.

지난 22일 과천문화체육공원에 개최된 제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에서 포천시 2부에서 종합점수 70점을 획득

특 여주군(1위, 130점)과 오산시(2위, 120점)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마라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생활체육경기도육상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2천3백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포천시는 이번대회에 총 42명(선수 39, 임원 3)이 참가, 이들 중 김천구 선수가 대회 최고기록인 34분 52초 59로 10km 30대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전에 힘입어 종합3위를 차지했다.

포천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마라톤 2부가 처음 신설된 이번 대회에서 포천시가 차지한 3위는 포천 마라톤 동호인들의 쾌거라 할 수 있으며, 마라톤 발전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1부에서는 수원시가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Interview 생활체육 마라톤 김천구 선수

“마라톤은 내 인생”

서브3 2회, 4년간 각종 대회 30~40회 입상



김천구 선수

제6회 경기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가 지난 22일 과천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2부에서 포천시 3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김천구(35·사진·포천마라톤클럽) 선수를 만났다.

김천구 선수는 10km 30대부에서 대회 최고기록인 34분 52초 59로 참가 선수들 중 가장 빨리 결승선을 뚫었다.

후배인 이선호씨의 권유로 마라톤을 시작한지 4년 되었다는 김 선수, 각종 대회 입상만 30~40회를 차지, 지난해 조선일보 춘천마라톤과 중앙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아마추어 마라톤인들의 꿈이라는 서브3(Sub3, 3시간 이내완주)를 각각 차지했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 김 선수는 "포천시장 천봉석 감독과 오대근 포천시육상경기연맹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의 도움이 컸다"며 "편안하게 뛰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포천의 달리는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쉽다"며 "많은 동호인들이 발걸음 옮기길 바란다"고 마라톤 발전을 기원했다.

목조주택 시공회사인 파인프로스트에서 대리 근무하고 있는 김 선수, 일주일에 3~4회, 하루 40분 정도 달린다는 김 선수는 "마라톤은 건강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운동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며 적극 추천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13

포천시유도협회

강홍식 회장

유도회관 건립으로 체계적 훈련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 체육회의 어떤 가맹단체보다도 결속력이 강하다는 유도회, 최초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운영되다 2000년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정식 출범하게 된 포천시 유도회는 유도의 저변확대와 발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2000년 창립과 동시에 초대 회장에 취임, 현재까지 포천시유도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홍식(56·사진) 회장이로부터 포천유도의 발전상을 들었다.

강홍식 회장은 고교시절 충남 천안에서 유도 선수를 지냈으며 현재 가산면에서 흥영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경제인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정식 출범 전부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유도회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다"며 "확장시절 유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유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성한 단체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 유도회는 강홍식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3명, 전무이사 1명, 이사 15명으로 구성됐다.

포천 유도회의 구성체는 단체나 체육관 중심이 아니라 유도동호회(코치 이재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 회장은 "포천에서 유도는 생소한 종목이라 생각되는 것 같지만, 포천출신으로 유도를 경험한 구성원들이 결성한 것이 유도동호회"라며 "선수는 7체급의 15명 내외로 작지만 내실 있는 운영으로 경기도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도동호회의 구성원들은 포천출신으로 의정부 경민고, 용인대, 한국체육대학 등의 선수들이 주를 이룬다.

포천유도회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를 위해 유도동호회 뿐만 아니라 선수 확보를 상시 유지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강 회장은 "지역별로 선수들이 1~2명씩은 분포하고 있으며 관내 선수를 다 합하면 20여명이 넘을 것"이라며 "큰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 유도회에서는 유도 발전을



강홍식 회장 포천시유도협회

위해 열악한 시설의 극복 차원에서 자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포천유도회는 자체 체육관 건립을 위해 올해 안에 부지선정과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수년안에 유도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포천 유도회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강 회장은 "현재 소흘을 송우리에서 훈련하고 있는 유도동호회 회원들은 2단 주치가 아래에서 훈련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들이 이런 열악한 시설속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 결심하게 된 사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도는 구기종목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공간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포천 유도회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선 금, 동, 은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강 회장은 "분명한 선수들과 포천유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에서 유급제 코치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코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포천 유도회가 책임질 것이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유도회를 이끌겠다는 강 회장은 "유도를 지원하는 주무부서 민원인 직원 번공수 씨에게 늘 감사하다"며 이외에도 유도발전을 위해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연말 송년회에 함께 한 포천유도회 회원들.

탐방 | 지역체육회 13 소흘읍 체육회 회장 이흥구

“실내체육관 · 체육공원 절실하다”



이흥구 회장 소흘읍 체육회

수 발걸,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흥구(49·사진) 회장이로부터 지역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 등에 대해 들었다.

이흥구 회장은 현재 포천시의회 의원

소흘읍 체육회는 신흥도시의 면모를 자랑하며 체육 강군을 위한 지역화합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소흘읍체육회를 이끌며 지역체육의 발전과 역량을 높여

오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높은 신망과 체육을 좋아해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흘읍체육회는 이흥구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종목별 부장으로 임원진이 구성돼 있으며, 당면직으로 이장과 단체장이 포함된 200여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소흘읍 체육회는 종목별 부장(감독)을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10여개 전 종목에 걸쳐 배치해 놓았다"고 밝혔다.

소흘읍 체육회의 특징은 각종 대회의 개최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이 회장은 "소흘읍 체육회는 전 종목에 걸쳐 체육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렇게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

는 이유는 모든 종목에 있어 고를 발전과 선수 육성 및 발굴을 통해 지역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흘읍 체육회의 연중행사는 다양하다. 또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체육회 차원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중으로 읍민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타지역과는 달리 소흘읍 걷기 대회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며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소흘읍 체육회는 생활체육에 대한 각종 관련단체와 행사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에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 회장은 "지역에 동남고, 갈월중, 동남중, 추산초 등이 있지만, 실상 엘리트체육을 위해 지원할 여력이 지역체육회로서는 부족하다"며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은 항상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로 포천시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된 후에 지역체육회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소흘읍 체육회와 시

민들의 건강 증진과 발전에 있어 체육공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흘읍의 인구가 4만 명에 이르면, 시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도 한 곳밖에 구축돼 있지 않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또한 도시의 발전 속도에 비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타지역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역시 소흘읍에 절실한 시설종의 하나"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체육시설 인프라가 도시 계획 당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먹구구식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행정지 지역발전과 주민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천시의 체육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소흘읍체육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체육인들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慶 祝

GOEUN은 창사 1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인의식을 기업정신으로 항상 성실과 믿음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OEUN 가족일동 -